

慶南 咸陽地域語의 音韻論的 考察

田 光 鉉*

I

筆者는 年前에 全羅北道 南原地域語에 대한 基礎語彙를 調査・整理한 바가 있다.⁽¹⁾ 거기에서도言及했듯이 南原地域語가 全羅北道方言圈에 있어서 特徵的이고, 雲峰地域語는 南原地域語中에서도 하나의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그 接觸方言의 한 地域인 咸陽에 대한 檢討가 必要함을 強調한 일이 있다. 따라서 本考는 이러한 關心의 一隅에서 出發되거나와 그 記述範圍는 역시 咸陽地域語의 音韻論的 樣相에 대한 記述에 重點을 두게 된다. 그리고 接觸方言으로서의 等語地帶的 要素에 대한 把握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나 南原地域語(특히 雲峰地域語)와의 比較는 다음 機會로 미루고자 한다.

咸陽은 그 地理的 位置로 보아 慶尙南道의 西北部에 있으며 居昌郡, 山淸郡, 河東郡, 南海郡과 더불어 所謂「西部慶南」의 一部가 된다. 그리고 全羅北道の 長水郡, 南原郡과는 道界 兼 郡界를 包含한 相異한 地域의 特性을 가지며 특히 山間의 高原의 特性을 共有하고 있다는 點에서 그 地理的 與件의 共通性을 發見할 수 있다. 더구나 咸陽에서 晉州, 咸陽에서 南原으로 通하는 道路는 歷史的인 意義를 보여준다. 卽 이 地域들에 있어서 東西(全羅北道와 慶尙南道)를 連結시켜 주었던 唯一한 交通路로서의 價値는 接觸方言의 接觸幅을 意味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言語外的 要素(Non-linguistic factor)가 方言의 分化和 統合에 있어 絶對性을 띄고 있다는 前提는 危險性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地域들의 史的 記述과 더불어 생각할 때 實際 言語의 實相을 把握하는 데 있어 하나의 補助的 意義를 지닌다는 點에 인식해 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咸陽郡은 本來 弁韓地에 屬했던 것으로 推定되는 바 新羅의 速舍郡이었는데 景德王(742—764)이 改稱하여 天嶺郡이라 하였다. 高麗 成宗 14年(995)에 陞格하여 州都團鍊使로 만들었다가 顯宗 3年(1012)에 降格하여 舍陽郡으로 하고 陝州에 來屬되었다. 舍陽은 혹 咸城이라 하였는데 뒤에「舍」이「咸」으로 變했다. 明宗 2年에 縣으로 降格하여 監務를 두었다.⁽²⁾ 그리고 咸陽과 雲峰의 관계

* 檀國大學校 文理科學 副教授, 國語學

(1) 拙考(1973), 全羅北道 東南方言의 研究, 文敎部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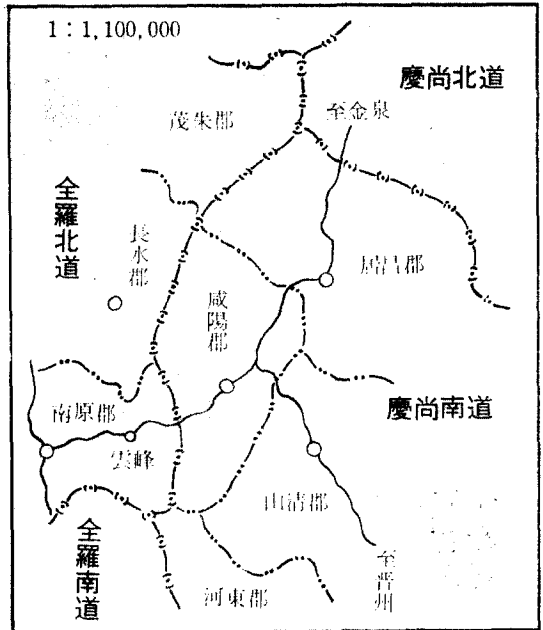
—— (1978), 南原地域語의 基礎語彙 調査研究, 也泉金敎善先生停年紀念論叢.

(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1, 咸陽條.

慶尙南道誌 編纂委員會(1960), 慶尙南道誌(上) p. 563.

는 新羅의 古土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雲峰이 天嶺郡의 屬縣이었다는 史實은 매우 注目할 만하다.⁽³⁾

咸陽地域語에 대한 지금까지의 音韻論의 記述은 대체로 慶尙南道의 方言區劃上 西部에 包含된 西南方言圈의 하나로 取扱되어 왔다.⁽⁴⁾ 그리하여 이 下位方言의 諸特徵中 母音體系에 있어 慶尙道方言의 全體의 問題로 臺頭되는 /e/ /ɛ/, /i/ /ə/ 등의 實現性에 대한 論難과 더불어 /E/ /ɤ/의 設定에 보다 많은 意味를 부여하는 作業들이 行해졌다. 本考는 이러한 論難의 실마리를 念頭에 두고 始作되었지만 西南方言圈(西南慶南) 全體를 對象으로 考究되는 것이 아닌 만큼 該方言圈의 共通의 因子의 抽出에 대해서는 留保기로 하고 咸陽地域語 自體의 特性과 더불어 音韻論의 諸側面에서 檢討하는 데 滿足코자 한다.⁽⁵⁾



II

우리가 咸陽地域語에 대하여 論議할 音韻論의 方向은 대략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하나는 諸音韻現象을 通하여 體系의 斷面을 把握하는 것이오, 다른 하나는 音韻의 定立을 위한 辨別的 對立의 機能을 分析해 보는 일이다. 대저 어떤 音韻들의 統合的 關係가 音韻現象들의 構造의 樣

(3) 三國史記 地理誌 卷34, 雜誌 第3, 地理1 天嶺郡 本連含郡 景德王改名 今咸陽郡 領縣二 雲峰縣 本母山縣(或云 阿英城, 阿英城) 景德王改名 今因之 利安縣 本馬利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9, 雲峰條

本新羅母山縣 或云 景德 或云 阿英城 或云 阿莫城 後改今名 屬天嶺郡 高麗屬南原府 恭讓王三年 兼阿容谷 勸農兵馬使 本朝太祖元年 置監務後例 改縣監

校訂 慶尙道地理志(朝鮮總督府中樞院) 咸陽郡

在新羅時 稱天嶺郡 本連含郡 在高麗時 改咸陽郡 置監務 恭讓王時 洪武庚午 以郡爲要害之處 兼管軍萬戶 在本朝太祖時 乙亥 升爲知郡事 別號 許州

在三國時 領縣 雲峰縣 利安縣也 雲峰 移屬全置 置監務 年代未詳 利安縣 在高麗 恭讓王時 庚午 合減陰縣 置監務

(4) 金永松(1974), 慶南方言, 國語方言學 所收, 韓國方言學會

金永泰(1974), 慶尙南道의 方言區劃 및 慶尙南道方言研究(I) 所收의 同題目 論文(1975)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5) 本 咸陽地域語를 現地調査하는 過程에서 좀 不安스러웠던 일은 調査期間이 너무 짧았던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體系의 把握에 관한 限은 無理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豊富한 資料의 蒐集과 確認의 節次가 缺如된 立場에서 諸音韻現象을 說明한다는 것이 負擔스러울 뿐이다. 이번 本科 夏季踏查의 方言調査는 그 調査上의 試圖의 觀點을 筆者 나름대로 세워 보았다. 即, 可能하면 한 地點을 擇하고 提報者(informant)도 1人으로 限定하여 集中的인 調査를 試圖해 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豫定地域中 咸陽邑을 擇하였고 孫貴男(72歲, 女) 할머니를 提報者로 選定한 셈이었다. 確認調査를 위한 他面調査는 거의 不可能했다. 따라서 「咸陽地域語」는 前述한 制限性을 가지며 同時에 世代的인 側面에서 老年層의 方言이 그 對象이었음을 前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踏查에 參與했던 科敎授님, 學生들, 그리고 提報者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고 本考로써 우리의 努力에 代身코자 한다.

相을 誘導하고 各 音韻들의 辨別的 資質들이 直接적으로 關與하여 全體를 說明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어느 方言의 音韻體系를 力動的으로 設定해 주는 契機가 된다고 생각한다. 本考에서 諸音韻現象들을 中心으로 해서 記述하게 되는 所以가 바로 그러한 點에 있는 것이다. 특히 接觸方言의 性格을 보여 주리라고 期待되는 地域이나 等語地帶의 方言에 있어서는 어떤 音韻의 差異보다도 훨씬 더 表面的인 特徵을 提示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音韻의 數는 勿論이고 音韻間의 有機的 關係가 把握되고 音聲上的 領域과 間隔에 따른 變異音의 類型을 理解하게 되며 同時に 諸般 制約規則의 多樣性を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本考는 口蓋音化를 비롯한 子音의 音韻現象과 Umlaut를 비롯한 母音의 音韻現象들을 차례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⁶⁾

1. 口蓋音化

여기서 取扱되는 口蓋音化의 範圍는 /k/ /t/ /h/에 局限시키고자 한다. /n/ /l/ /s/의 경우는 音聲의 實現에 있어서 他方言과의 共通의 樣相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音韻的 次元에서 辨別性を 呈示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口蓋音化의 通時性和 共時性은 그 結果의 實相이나 制約的 條件 등이 一般性を 띄고 있음도 우리의 興味를 끌게 되거니와 Umlaut 現象(i 逆行同化)과의 關係가 하나의 特徵을 이루고 있음도 看過할 수 없는 要件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1) /k/ 系 口蓋音化: /k/ 系 口蓋音化는 우선 그 實現에 있어 音節的 位置와 有關係하여 第一音節에서는 生産的이지만 第二音節以下에서는 制約을 가진다.⁽⁷⁾

(A) /cil^hsam/ (걸쌘), /ci:lks/ (걸계), /ciliki/ (걸이), /cisim/ (깁), /ciwa/ (기와), /citonj/ (기둥), /cəntinta/ (견딘다), /ciciks/ (기지개), /cat^he/ (겇에), /^hciŋkasə/ (끼워서), /cəp^hce/ (겇چه) etc.

이들은 모두 南部方言圈에서 一般的으로 보여주는 必然的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 系 母音의 資質이 어떻게 形成되었는가에 따라, 即 그 基底가 무엇이었는가에 의해서 音節的 制約으로부터 벗어나 口蓋音化를 實現시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는 歷史的 觀點에서 이미 指摘된 바 /t/ 系 口蓋音化와 同軌를 나타내고 있다.

(B) /ki/ (귀) /ki·sin/ (귀신) /kikjən/ (구경) /^hkili nok^ho/ (끓여 놓고) /kihejo/ (귀해요) /^hkimeko/ (깨매고) etc.

이들의 共通點은 결국 非 /i/ 系 母音들로부터 w-削除, Umlaut 現象등에 의해서 /i/ 系 母音의 變異音으로 轉化한 母音들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곧 南部方言의 母音體系의 一端과 關係가 있는 것이지만 이 制約은 j 系 二重母音의 경우와는 다른 結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妥當하

(6) 調査過程에서 筆者는 suprasegmental phoneme에 대한 徹底한 調査를 行하지 않았다. 흔히 경험하는 바이지만 stress 方言圈의 調査者가 pitch 方言을 理解할 때 印象의 把握의 危險性이 항상 介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pitch의 機能의 價値를 認定하면서도 取扱하지 못했다.

(7) 金完鎭(1971a), 音韻現象과 形態論的 制約(國語音韻體系의 研究 所收) p.137.

다고 하겠다. (勿論 /ij/의 경우는 除外되지만)

(C) a) /se.^hce/(고운겨) /waŋce/(왕겨)

b) /tiŋke/ /tiŋki/(등겨) (「왕겨」는 未調査)

「겨」(糠)에 대한 口蓋音化는 /ce/가 一般性을 보이나 (C) a)는 그 音節의 位置가 第二音節이라는 점이 特異하나 形態素內部라는 單純한 解釋이 不可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따라서 /wscilim/ /non^hcil/ 등에서와 같이 形態素境界의 경우로 處理할 수 있을 듯하다.⁽⁸⁾ b)는 /tiŋkja/의 形態들이지만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못하는 制約條件이 Umlaut와 有關함을 立證하는 例가 된다. 即 Umlaut 보다 口蓋音化가 先行되면 /tiŋce/를 얻게 되며 동시에 子音 /c/의 資質은 勿論 母音 /e/의 非 Umlaut的 要件때문에 */tiŋce/가 實現되지 않는다는 解釋이 可能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반대로 Umlaut가 先行되면 /tiŋkja/가 形成되고 /kja/는 第二音節以下에서 口蓋音化를 經驗하는 것이 아니라 二重母音의 單母音化, 即 /kja←ke←ki/ 過程을 거친다고 理解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傍證하는 다음과 같은 例들은 결국 하나의 새로운 制約規則을 抽出해내는 可能性을 보여 준다.

(D) /eki/(아기) /^hkampeki/(잡부기) /konki^hta/(끓기다) /^htenkiko/(당기고) /tulumeki/(두루마기) /neŋkiko/(넙기고) /sekita/(삭이다) /poceki/(보자기) /me^hkita/(말기다) /pe^hkita/(벗기다) etc.

上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二音節以下에서 先行音節의 母音이 前部母音이거나 前部母音化의 可能性이 있을 때 /k/系の 口蓋音化는 制約을 받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口蓋音化와 Umlaut 現象은 有關하며 Umlaut 現象의 基本條件이 同化主의 位置가 第一音節에 있을 수 없다는 必然的 事實에 立脚해 볼 때 第二音節에 관한 限 그 妥當性이 認定된다고 여겨진다.⁽⁹⁾ 文法的 形態素 主格 /-i/, 繫辭 /-i-/와 先行하는 體言의 末音 /k/의 結合이 이루어질 때 口蓋音化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은 거의 Umlaut를 經驗하고 있다. (/^hteki/(떡이) /^htekila/(떡이다)

2) /t/系 口蓋音化: 우리는 이 /t/系 口蓋音化가 史的 立場에서 매우 오래된 現象이며 또한 그 制約條件이 무엇인가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¹⁰⁾

(A) /kac^hi/(갈이) /mic^hi/(밀이) /kuci/(굳이)

(B) /cəntinta/(전디다) /cante/(견더) /titita/(디디다) /^hcanti/(잔디) /modi/(마디) /pə^htita/

(8) 拙考(1977), 全羅北道 益山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어학 4 全北大 語學研究所 p. 77.

(9) 拙考(1977), p. 77.

(10) 安秉禧(1957), 重刊社詩諺解에 나타난 t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金亨奎(1962), 口蓋音化考, 國語史研究 所收

李基文(1972), 改訂 國語史概說.

——(1972), 國語音韻史 研究.

金完鐵(1971b), 高句麗語에 있어서 t口蓋音化現象에 對하여,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所收

韓載賢(1975), 國語口蓋音化의 再檢討, 어학 2, 全北大 語學研究所.

金手坤(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Doctori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버티다)

(C) /kuŋtiŋi/(궁둥이) /kutŋi/(구덩이) /tutiki/(누더기) /kotŋi/(고동)

(A)는 南部方言뿐만 아니라 中部方言에서도 一般化되어 있는 必然的 現象이며, (B)는 /t/系에 後行하는 /i/의 史的 音韻論의 過程으로 說明되는 것이다. 그러나 (C)는 그 /i/의 樣相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 制約性을 가지는 바, 非 /i/系母音이 Umlaut에 의하여 /i/系母音으로 바뀔에 따라 二重母音을 經驗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共時的 側面에서 (C)는 口蓋音化를 일으킬 수 없게 된다. /t/系 口蓋音化는 /k/系 口蓋音化와는 달리 共時的으로 第二音節以下에서만 實現 가능한 特徵을 가진다. 이는 곧 史的 實現의 前提를 意味하기도 한다.

3) /h/系 口蓋音化: 咸陽地域語도 역시 他方言의 경우와 同一하다.

/suŋŋjən/(흥년) /simi/(힘이) /saŋ'pul/(향불) /soca/(효자) /se'patak/(헛바닥) /səŋ/(형) /sim'cul/(힘줄) etc.

그리고 /ij/의 母音을 基底로 잡을 수 있는 경우의 /h/는 表面上으로 /i/와 結合되어 있다 하더라도 口蓋音化는 實現되지 않는 듯하다. /hijko/(회고)→/hiko/→*/siko/.

2. 語頭硬音化現象

語頭硬音化現象의 要因에 대해서는 이미 史的인 側面에서 밝혀진 바이지만⁽¹¹⁾ 方言에 있어서는 몇가지 類型的이라기보다는 單一한 要因에 의하여 形成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곧 言語의 生硬性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 硬音化의 對象音韻은 相關的 關係를 가지는 /k/→/ʔk/, /t/→/ʔt/, /p/→/ʔp/, /s/→/ʔs/, /c/→/ʔc/ 등 5個의 音韻에 限定되고 있으나 그 實現範圍나 環境이 一定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있어서는 辨別的 對立의 機能을 갖지 않으며 어느 程度 隨意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k/系

/ʔkəŋi/(괭이) /ʔkocʰi/(고추) /ʔkoʔkam/(곶감) /ʔkamʔku/(감고) /ʔkisillin/(그울린) etc.

/t/系

/ʔtupu/(두부) /ʔtakʔko/(닭고) /ʔtuʔkəpʔta/(두껍다) /ʔtuʔkəpi/(두꺼비) /ʔtuʔke/(두께)

/ʔtatimcil/(다듬질) etc.

/p/系

/ʔpitilkʰi/(비둘기) /ʔpikəŋi/(병아리) /ʔpəntski/(번데기)

/s/系

/ʔsalmajo/(삼아요) /ʔse/(혀) /ʔse/(쇠)

/c/系

(11) 李基文(1959), 十六世紀國語의 研究, 高麗大 文理論集 4, pp. 63~66.

/ʔcokʔtoli/(죽도리) /ʔcokʔcipi/(죽제비) /ʔcalinta/(자른다) /ʔcopun/(좁은)

이러한 語頭硬音化의 用例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단지 社會意識에 따른 言衆들의 心理的 要因 밖에는 없는 듯하다. 語中에 있어서도 역시 同一한 結果를 招來하고 있는 바 老年層보다는 壯年乃至 靑少年層에서 强하게 나타나고 있다.

3. 語幹末子音群

現代國語에서 母音間 三子音의 自動的 交替는 方言間의 差異를 보여주는 하나의 要素가 된다. 이에 대한 環境은 單語境界標識 앞이나 形態素境界標識를 先行시킨 子音 앞이어야 한다는 一般的 制約을 가진다. 따라서 後行하는 形態素가 母音으로 始作되는 경우와는 相互 다른 面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自動的 交替의 경우 어떤 子音을 主音으로 擇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어떤 子音을 脫落시키느냐 하는 問題로 歸着된다. 우리의 論議對象은 아무래도 /ps/, /ks/, /lm/, /lh/, /ltʰ/, /lk/, /lk/, /lpʰ/, /ls/, /nh/, /nc/ 등이 되며 이들이 體言과 用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된다.

<體 言>

/ps/: /kapʔkwa/(값과), /kapʔto/(값도)

/ks/: /mok/(몫), /mokʔto/(몫도)

/lm/: 없음

/lh/: 없음

/ltʰ/: 없음

/lk/: /takʔto/(탑도), /takʔkwa/(탑과)

/lp/: /jətəl/(여덟)

/lpʰ/: 없음

/ls/: /tol/(툽), /tolʔto/(툽도)

/nh/: 없음

/nc/: 없음

<用 言>

/ps/: /i·pʔta/(없다), /i·pʔci/(없지)

/ks/: 없음

/lm/: /ʔsamʔta/(삼다), /cəmʔta/(쥘다)

/lh/: /ʔkiltʰa/(끓다), /ʔkilkʰo/(끓고)

/ltʰ/: /hulʔko/(훑고), /halʔta/(훑다)

/lk/: /pokʔto/(빡도), /kulʔko/(굽고)

/lp/: /^ʔtəp^ʔta/(툼다), /nəp^ʔt/(넙다), /^ʔcal^ʔkc/(잡게)

/lp^h/: /ip^ʔta/(을다)

/nc/: /aŋ^ʔko/(얏고), /aŋ^ʔta/(얏다)

/nh/: /^ʔkinc^hi/(중지), /^ʔkint^ha/(중다)

이중에서 /l/系의 /lk/, /lp/가 모든 方言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比較的 隨意性을 띄고 있으나 咸陽地域語에서는 대체로 /lk/에 대해서 /k/, /lp/에 대해서 /p/를 擇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後行하는 母音만의 形態素가 連結될 때 體言과 用言은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다른 方言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用言의 경우는 語幹末子音이 모두 實現되지만 體言은 약간의 隨意性을 가지고 있다.

4. 中和 및 語末子音의 再構造化

音節末 障礙音[+obst]의 中和는 單語境界 앞이나 子音으로 始作되는 音節 앞에서 內破에 의해 實現된다. 이는 中部方言과 마찬가지로 이 方言에서도 나타나는 바 /k/ /^ʔk/ /k^h/는 /k/로, /p/ /^ʔp/ /p^h/는 /p/로, /c/ /^ʔc/ /c^h/와 /t/ /^ʔt/ /t^h/ /s/ /^ʔs/는 /t/로 되어 이들은 體言과 用言의 屈折에 共通의으로 適用된다. 이들의 規則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表示할 수 있다.⁽¹²⁾

$$[+obs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strid \\ -conti \\ -voiced \\ -tense \end{array} \right\} \Bigg/ \text{---} \left[\begin{array}{c} \# \\ +C \end{array} \right]$$

그런데 體言에 있어서 그 末音이 /k^h/, /t^h/, /p^h/, /c/, /c^h/인 경우 母音으로 始作되는 拘束 形態素가 連結될 때 그 語幹의 末音이 /k^h/→/k/, /p^h/→/p/, /t^h/ /c/ /c^h/→/s/로 되는 것은 中部方言圈에 있어서 매우 強力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으나 咸陽地域語에서는 거의 拒否의으로 나타난다.

/cip^hulo/(짚으로), /cip^hε/(짚에)

/mit^hilo/(밀으로), /mit^hεda/(밀에다)

/kamasot^hetaga/(가마솥에다가), /pat^hil/(밭을)

/pat^hε/(밭에), /p^hot^hil/(밭을), /nacilon/(낫으로는), /^ʔkoc^hi/(꽃이) etc.

(* /^ʔkic^hil/(밭을), /sotanεta/(솔안에다))

그리고 用言에 있어서는 他方言과 同一하게 이 現象을 一切 拒否하고 제 音價대로 實現시키고 있어 體言과 用言의 語幹은 그 境界標識의 機能이 別差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¹³⁾ 다만 /pusək/은 末音이 /k/로 固定되어 있으므로 實際로는 該當 用例가 分明하지 않다.

(12) 李秉根(1975), 音韻規則과 非音韻論의 制約, 國語學 3, p. 33.

(13) 拙考(1977), pp. 79—70.

(/munak^hetaka/(문앞에다가))

語末子音의 再構造化에 따른 다음과 같은 用例는 必然的은 아니지만 南部方言의 한 特徵으로서 提示될 수 있겠다.⁽¹⁴⁾

/papako/(밥하고)←/pap+hako/→[pabago]

/ʔtəkako/(떡하고)←/ʔtək+hako/→[ʔtəgago]

/ʔkeʔkitani/(깨끗하니)←/ʔkeʔkit+hani→[ʔkeʔkidani]

(* /mojok^hako/(목욕하고))

5. 語中子音 —/p/, /k/, /s/의 경우

語中子音 /p/, /k/, /s/는 史的 立場에서 보면 /β/, /h/⁽¹⁵⁾, /z/와 對照되는 것이다. (中世國語에서) 이들에 대한 研究는 그 分布와 消失 및 音價에 관한 史的 考究에 集中되어 왔고 方言의 경우는 그 分布에 따른 境界 및 史的 記述을 위한 補助資料로서 取扱되었다. 이 地域語에 나타나는 語例를 약간 들면 다음과 같다.

/hopak/(확), /talpi/(다리), /ʔtapali/(또아리)

/sepi/(새우), /talapəsa/(더러워서)

/kopun/(고운), /cipəʔkuma/(기웠구나)

/ʔkopasa/(꽃아서), /ʔtulpa/(뿜어)

/məlku/(머루), /ulkumun/(울이면)

/suŋkə/(심어), /siŋkulʔte/(심을 때), /ʔsiʔkə/(씻어)

/musi/(무우), /kasike/(가위), /kasil/(가을), /jəsi/(여우)

/isəcuko/(이어주고), /ʔposataka/(부엌다가)

그러나 이들 /p/ /k/ /s/의 維持形이 史的 立場과 一致하지는 않으며 慶尙道方言圈과도 完全히 同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中部方言圈의 影響下에 漸次 消失되어 가고 있음을 認定할 수 있다. 이는 靑壯年層의 大部分이 이 子音들의 代價적인 消失을 經驗하고 있어 慶尙道方言의 特徵으로서의 價値가 漸減되어가고 있다. 다만 老年層에서 이들의 維持形을 比較的 強하게 보여 音韻史的 觀點에서 하나의 連脈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겠다. 老年層에서도 /noli/(노루), /mole/(모래), /caolla/(줄러) 등으로 나타난다.⁽¹⁶⁾

(14) 崔明玉(1974), 慶南 三千浦方言의 音韻論의 研究, 國語研究 32, pp. 89-90.

(15) /k/에 대하여 /h/를 設定한 것은 中世國語의 特殊語幹('놀이, 달아')과 k脫落('널우, 몰애')에 있어서 音聲의 實現의 實體를 [h]로 보았을 때 可能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對하여, 麗禮學報 23.

(16) 이 子音들의 分布에 대하여는 많은 研究가 있으나 그중 代表的인 것은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

李崇寧(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6. Umlaut 現象 (i 逆行同化)

이 現象은 거의 모든 方言에서 觀察될 수 있는 廣範圍한 分布를 가지고 있다. Umlaut 現象은 다른 音韻現象과 같이 統合的 現象이므로 比較的 多樣한 面을 提示해 줄 뿐 아니라 母音體系 自體와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 重要性을 認定하게 된다. 더구나 同化的 同質類라고 할 수 있는 口蓋音化와는 前述한 바와 같이 有關한 關係에 있으며 被同化主가 子音과 母音이라는 差異 뿐 同化主 自體가 同一하다는 觀點에서 同一한 範疇로 取扱될 수 있는 可能性마저 存在한다고 하겠다. 이 Umlaut에 대해 이미 言及된 勞作들은⁽¹⁷⁾ 보다 높은 次元에서 諸層位로부터의 記述을 試圖하였으며 그 制約條件까지 提示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興味와 가장 接近되는 것은 李秉根(1971)의 雲峰地域語에 관한 報告書이다. 地域的 特徵의 差異가 있지만 咸陽地域과의 接觸方言이라는 점에서 크게 參考가 된다.

Umlaut 現象은 母音體系에 있어 前部母音과 後部母音의 兩分된 體系를 前提로 하여 後部母音이 逆行同化에 의해 前部母音化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一定한 規則이 存在하게 되며 各層位別로 制約이 따르게 된다. 보통 이 Umlaut에 대한 記述은 音韻論的, 形態論的, 形態音素論的, 統辭論的 諸層位의 觀察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現象에 대한 一般的인 規則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left[\begin{smallmatrix} V \\ +back \end{smallmatrix} \right] \longrightarrow \left[\begin{smallmatrix} V \\ -back \end{smallmatrix} \right] / \text{---} \left[\begin{smallmatrix} C \\ -coronal \end{smallmatrix} \right] i$$

咸陽地域語에 있어서도 이 規則은 그대로 적용된다.

/eki/(아기) /emi/(어미) /holeŋi/(호랑이) /keki/(고기) etc.

이러한 例들은 「Lexical morpheme 내에서 자유로이 實現된다」는 Umlaut의 가장 基本的인 規則으로 理解된다. 그리고 Lexical morpheme 끼리의 結合에 있어서는 우선 單一한 Lexical morpheme이 아니라는 同化的 不可能性에 대한 暗示를 얻게 된다. 그것은 결국 單語境界標識의 介在가 一般的으로 Umlaut의 實現을 沮止하는 制約要素로서 登場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리하여 /^ʔkoc^h#ip^hali/(꽃잎), /ap^h#il/(앞일), /^ʔkum#kil/(꿈길) 등은 Umlaut에 대해 拒否의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制約條件은 音韻論的으로 說明되는 繼續的 資質(continuant feature)의 介在에 의하여 Umlaut의 形成을 妨害하는 것이다. 이것은 形態論的 制約에 있어서도 包含되는 要件이다.

/^ʔkanc^hi/(까치), /^ʔkoc^hi/(고추), /cəŋci/(부엌), /ipaci/(잔치), /paci/(바지), /coŋci/(종지)

(17) 李崇寧(1954), 國語音韻論研究, 第一輯, 「·」音攷 pp.231-252.

金完鎭(1971a), pp.131-136.

李秉根(1971), 雲峰地域語의 음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pp.437-487.

金完鎭(1975), 全羅道方言 音韻論의 研究 方向設定을 爲하여, 어학 2, 全北大 語學研究所 pp1-2.

(18) 金完鎭(1971a), pp.131-132.

/ʔkaci/(가지) etc.

/kusi/(구슬), /pʰumasi/(품아지), /ʔkasi/(가지), /tasi/(다지), /capʰsi/(접지) etc.

/poli/(보리), /həli/(허리), /tali/(다리), /məli/(머리), /pʰoli/(파리), /kəmuli/(거머리),

/poʔtali/(보파리) etc.

/koni/(고니)

이들 單語內에 介在된 子音 /c/, /cʰ/ /s/, /ʔs/, /l/, /n/ 등은 하나의 繼續的 資質을 共通的으로 가지고 있는 音韻論的 制約의 役割을 하며 이 子音들을 가진 重子音의 介在도 역시 同一한 制約을 받게 된다. 이것은 결국 共通된 資質의 結合을 꾀리는, 即 同化主 /i/와 被同化主 /i/, /ə/, /a/, /o/, /u/, 그리고 介在子音의 共通的 資質間에 있어서 音聲上의 調音的 同質化를 꾀리는 國語의 한 音韻論的 特徵으로 理解된다.⁽¹⁹⁾ 이들 子音중에서 /l/의 介在는 益山地域語에서 語幹內의 可能·不可能한 兩面性을 보여준다.⁽²⁰⁾ 그리하여 이 /l/을 口蓋音化의 觀點에서 하나의 變異音의 資質로서 그 制約의 條件을 삼았다.⁽²¹⁾ 이러한 解釋은 前述한 口蓋音化의 要件과 共通的으로 一致하는 結論에 到達케 된다. 即 Umlaut의 可能性에 있거나 Umlaut가 實現됐을 때 口蓋音化의 資質이 /l/에 나타나지 않으며 反對로 口蓋音化의 資質을 갖게 되는 變異音으로 바뀌면 Umlaut는 自動적으로 實現되지 않는다는 假說的 結論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Umlaut와 口蓋音化의 有機的 關係의 一端을 보이는 暗示的 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보면 咸陽地域語는 Lexical morpheme 內(體言)에서 매우 拒否的이다. 따라서 /heli-/ /teli-/의 用例는 勿論 /telipi-/의 用例도 볼 수 없다. 그러나 用言의 경우는 그 變化의 過程을 採取할 수 있다.

/mul tililʔte/(물 드릴 때), /cʰelita/(차리다), /tilinta/(드린다), /kelita/(가리다)

다음에 子音의 資質에 의해서 制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史的 立場이나 非母音系의 變化形이 Umlaut에 대해 制約을 加하는 形態音素論的 層位의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중에서 史的인 /ij/系의 母音은 全國方言을 對象으로 했을 때 /i/系와 /u/系, 그리고 完全히 相異한 形態(接尾辭 等에 의해)로 分化된다. 咸陽地域語는 거의 /u/系, 相異한 形態系의 分布를 가지고 있어 所謂 南方方言의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²²⁾ 따라서 이들은 어느 方言圈에 있거나 Umlaut와는 無關한 段階에 있는 것이다. 곧 /호미/가 /homi/, /homu/ /homeni/로 分化되었다고 본다.

다음에 形態論的 乃至 統辭論的 層位에 있어서의 Umlaut는 어떠한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論議될 範疇는 (1) Lexical morpheme과 Grammatical morpheme과의 結合 (2) 名詞化接尾辭, (3) 派生接尾辭 等이 된다.

(19) 李秉根(1971), pp. 81-482.

(20) 拙考(1977), p. 83.

(21) 李秉根(1971), pp. 481-482.

拙考(1977), p. 83.

(22) 拙考(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 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的 小考, 國語學 4.

(1) 主格 /-i/ 繫辭 /-i-/

/ʔteki/(떡이), /pepi/(뽕이), /al tʰeki/(알떡이), /peŋi/(방이), /cæmi/(잠이), /kaleki/(가락이), /matenji/(마당이), /ʔtekilaku/(떡이라고) etc.

被同化主의 母音이 Lexical morpheme 內의 것이고 대단히 自由롭게 實現되고 있다는 점을 考慮할 때 單語境界標識를 갖는 경우와는 달리 적어도 形態素境界標識의 意識을 強하게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音韻論의 制約條件인 繼續的 資質을 含有한 子音의 介在는 이러한 條件을 滿足시켜 주지 않는다(/도 同一). 이것은 곧 母音의 機能보다 子音의 機能이 于先한다는 前提가 必要함을 意味한다.⁽²³⁾

/ʔkocʰi/(꽃이), /soni/(손이), /cæci/(젓이), /pacʰi/(밭이)

(2) 名詞化接尾辭 /-ki/, /-i/

/kʰanmeki/(간막이), /soncæpi/(손잡이), /tiʔki/(듣기) etc.

/-ki/, /-i/에 의한 Umlaut 現象은 必然的이 아니고 隨意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慣用句의 形成에 의해 Umlaut를 形成시킨다.

/tiʔkisiltʰa/(듣기 싫다), /miʔkico:tʰa/(먹기 좋다), /pekico:tʰa/(보기 좋다)

이에 대한 解釋은 역시 李秉根(1971)의 意見과 같이 統辭論의 構成이 아니라 形態論의 構成으로 解釋되며 統辭의 構成의 경우는 아직 Umlaut가 實現되지 못하는 過程에 있는 듯하다.⁽²⁴⁾

(3) 用言의 派生接尾辭

用言의 派生接尾辭가 形態論의 構成의 位置에서 音韻論의 制約을 前提로 하지 않는 限 매우 自由롭게 Umlaut가 일어난다.

/peʔkijo/(벗겨요), /mikiŋ kə/(먹인 것), /mikʰita/(먹히다), /cikinta/(죽인다), /pelja/(버려), /cæpʰita/(잡히다) etc.

이에 비해서 介在子音의 資質에 의해 形態素內의 경우와 같이 Umlaut 實現에 制約을 받기도 한다.

/polpʰita/(밟히다), /mosita/(모시다), /kocʰinta/(고치다), /kasinta/(가시다), /colita/(줄이다) etc.

끝으로 漢字語의 Umlaut는 中部方言과 比較해 볼 때 매우 큰 勢力을 가지고 나타나는 바 순수국어의 경우와 同一한 條件에 의해 實現과 制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實現範圍는 약간의 制限을 받고 있으며 形態論의 構成에 있어서 形態素結合의 疏密의 差異가 言衆들의 意識속에서 作用하고 있는 듯하다.⁽²⁵⁾

/hæmjaŋ/(咸陽), /ʰæŋpʰjən/(形便), /hæŋkjo/(鄉校), /sekju/(石油), /kæŋpjen/(江邊),

(23) 崔明玉(1974), p. 64.

(24) 崔明玉(1974), p. 65.

(25) 金完鎮(1971a), p. 132.

李秉根(1971), pp. 485-486.

/kikjan/(求景) etc.

이 Umlaut 現象은 前部와 後部の 母音들이 相互 어떤 關係에 있는가를 釋明해 주는 重要的 役割을 하거니와 이들은 곧 母音體系의 形成에 보다 큰 意味를 가지게 된다. 적어도 咸陽地域語에 있어서 母音體系를 8 母音體系로 假定할 때 前部母音(/i/, /e/, /ɛ/), 後部母音(/i/, /ə/, /a/, /u/, /o/)의 Umlaut에 의한 關係를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게 된다.

/i/←/i/, /u/

/e/←/ə/, /o/

/ɛ/←/a/

여기서 /u/는 /wi/→/y/→/i/의 變化를 前提로 해야 하며 /i/는 /ij/→/i/, /o/는 /φ/→/e/로 의 內的 變化를 假定해야 한다.

南部方言이 共通의으로 보여주는 Umlaut의 實現範圍은 결국 中部方言과는 달리 擴大一路에 있기 때문에 諸層位의 制約條件에서 脫皮하려는 努力이 항상 潛在되어 있으며 그러한 實相은 地域的 側面에서 史的 順位와도 一致하고 있다.

7. ·音의 變化相

여기서는 ·音 全體에 관한 것은 留保하고 다만 分布上의 問題만을 考慮한다는 點에서 語頭의 /ʌ/가 /o/로 나타나는 現象에 대해서만 簡略하게 叙述하고자 한다.⁽²⁶⁾

/molla/(말라), /polla/(발라), /pok²to/(밧지도), /polpasə/(밧아서), /²posataka/(부쉬다가) etc.

/p^hol/(팔), /p^hot^h/(팔), /moti/(마디), /mosil/(마을간다)

史的으로 /ʌ/를 가졌던 語辭가 모두 /a/로 變化되지 않았음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거기에 주어진 環境과 條件이 /ʌ/의 變化에 대해 重要的 役割을 했음도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이런 事實은 上記 用例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語頭音이 唇音系의 資質을 가지고 있어서 /ʌ/가 圓唇母音化되어 /o/로 되었다는 점에서 그 音韻論的 統合性을 認定하게 된다. 勿論 /mazam/에 대한 */mosim, mosim/이 存在하지 않는 例外的인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咸陽地域語는 西北慶南方言의 分布의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8. 二重母音

咸陽地域語에 대한 二重母音의 把握은 基本的으로 形態素內, 形態素境界, 單語境界 등을 中心

(26) 崔明玉(1974), pp. 40-48.

三千浦方言에 나타나는 ·音의 變化相이 語頭와 非語頭に 따라 論議되고 있고 그 環境과 條件이 提示되어 있다. 筆者는 咸陽地域語에 대해서 全體의으로 論議한 準備가 되어 있지 않다.

으로 하여 그 변화와 制約條件을 檢討하게 된다.⁽²⁷⁾

二重母音을 形成하는 두 滑音(glide)인 /j/와 /w/는 그 資質上으로 보아 [-vocalic], [-co-nsonant]의 共通的 要素를 가지고 있으나 /j/는 [-back] [-round]이고 /w/는 [+back] [+round]라는 差異點이 있다. 現代國語에 있어서 二重母音들은 그 分布的 環境에 따라 對立을 喪失한 中和의 過程을 거치고 또한 統合的인 子音의 資質에 의하여 滑音의 特性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二重母音 自體의 制約과 더불어 體系上의 빈칸을 마련하게 된다. 中部方言은 他方言에 비해 二重母音의 數가 많은 便이며 또한 子音들과의 分布的 環境이나 統合的 關係에서 보다 더 複雜하게 나타난다. 이에 比하면 南部方言은 比較的 간단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咸陽地域語의 경우를 /j/系와 /w/系로 나누어 子音을 頭音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子音을 頭音으로 하는 경우 등을 形態素內의 構成과 形態素境界에서의 構成上 表出되는 音韻現象別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j/系 二重母音

母音으로 始作되는 語辭의 /j/系 二重母音은 表面的으로 다음과 같다.

/ja, jə, jo, ju, je/

/je/가 缺如된 것은 音聲上의 實現例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Umlaut에 의한 /jak+i/도 /jeki/로 되어 /je/의 實現例를 보기 어렵다. 동시에 ‘이야기’에 대해 /ja:ki/만을 얻어 /je/의 設定을 주저케 한다.

/ja/-/jatan/(야단), /jan^hcok/(양쪽), /jamulko/(야물고), /jajuhe/(야유회)

/jə/-/jal/(열), /jəŋ^hkə/(엠펜), /jəp^h/(엠펜), /jəca/(여자), /jəntəŋ/(영등)

/jo/-/jokan/(요강), /joke/(요기), /jo/(요)

/ju/-/jundi/(인두), /jut/(웃), /juric^han/(유리창)

/je/-/je cinco/(예 지내고), /jekijo/(여겨요), /je:nnal/(옛날)

/je/에 있어서도 /e:nnal/(옛날), /e^hpuko/(예쁘고) 등의 用例로 보아 매우 不安定된 位置에 있는 듯하나 적어도 語頭音節에서는 그 實現性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다음 音節頭音으로 子音을 取하는 二重母音의 樣相은 j-削除規則이나 單母音化規則에 의해 새로운 單母音을 產出해 낸다. 우리는 이 子音들을 齒擦音系, 兩唇音系, 軟口蓋音系 등으로 分離해서 j系 二重母音과 結合된 基底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피게 된다.

A. 齒擦音系

이에 包含되는 音韻으로 /t/, /t^h/, /^ht/, /c/, /c^h/, /^hc/, /s/, /^hs/와 /n/을 들게 된다(/n/을 別途로 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 包含시킨다). 이 子音들과 結合되는 二重母音은 表面的으로 形態素內에서 거의 實現되지 않는다. 이것은 現代國語의 共通的 現象(平安道 方言 除外)이기 때문에 再言

(27) 二重母音의 形成과 j-削除, W-削除, 單母音化 등에 관해 다음의 論文이 많은 參考가 되었다.

李秉根(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慶禮學報 32.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을 요치 않으나 특히 語頭に 있어서는 必然的이고 自動的이다. 齒音系(n도 포함)의 音韻들은 後行하는 /j/에 의해 口蓋音化가 일어나게 되고 同時に 그 子音이 脫落하거나 (/n/의 경우) [+palatal]의 共通資質에 의해 /j/가 削除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대로 單母音化現象을 經驗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들 子音을 先行시킨 二重母音들은 史的으로 이미 /n/ 脫落이나 /j/ 削除를 거쳐 語頭에서 /n/의 경우는 母音으로 始作되는 音節로 바뀌고 其他의 경우는 單母音만을 固守하는 狀態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第2音節以下에서의 /n/系는 隨意的이어서 가령 /səŋnju/와 /səŋnu/가 共存하고 /səŋnjaŋ/과 /səŋnaŋ/이 同時に 實現된다는 점으로 볼 때 比較的 不安定한 狀態가 아닌가 여겨진다. 全體의으로 보아 二重母音/ja, jə, jo, ju, je/는 形態素內의 語頭에서 齒擦音系列과 結合될 때 削除를 經驗하게 되어 /a, ə, o, u, e/로 되며 이는 곧 現代國語의 正書法, 音聲의 實現의 次元과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라고 斷言케 한다.

B. 兩唇音系

이에 關係되는 子音은 /m, p, pʰ, ʔp/의 네개다. 이 兩唇音系의 子音을 音節頭音으로 하는 二重母音은 j-削除와 單母音化를 經驗하게 된다.

/pʰentʰako/(편하다고), /mentʰe/(명태), /ʔpe/(뻘), /meŋci/(명주), /pecʰ/(벌), /pʰepak/(폐백), /ʔpom/(뽕) etc.

/pʰo/(표), /me/(묘)

여기서 /ja/, /ju/를 除外한 /jə, jo, je/는 각각 /e(o), e(e), e/로 되어 /e/의 경우는 모두 單母音化, /o/는 j-削除로 나타난다. (/ʔpom/은 特異한 用例가 된다.)

C. 軟口蓋音系

이에 包含되는 子音 /k/, /kʰ/. /ʔk/ 등은 二重母音과 結合될 때에는 制約을 가진다. 即 音節形成上의 빈칸을 보인다. /k/는 /ja, jə, jo, ju, je/ 등에 두루 連結될 수 있으나 /kʰ/, /ʔk/는 /jə/만이 可能하다.

따라서 그런 制約속에서도 口蓋音化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j/의 削除만을 보여주어 /a, ə, o, u, e/로 된다. (/kja/는 咸陽地域語에서 發見하지 못했으며 /kjo/는 口蓋音化를 일으키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jə/의 경우는 /e/로 單母音化되기도 하여 /e/, /ə/의 두 變化가 나타난다. 그리고 口蓋音化를 經驗하지 못한 때에는 역시 單母音化가 되어 /jə, jo, je/는 /e, e, e(i)/로 實現된다.

/cathe/(결에), /cəpʰe/(결체), /cantinta/(전딘다), /ʔcaipʰta/(껴입다), /cecip/(제집), /ce-su/(제수), /cul/(굴), /ceu/(겨우), /cetʰilaŋ/(겨드랑) etc.

/kelon/(결혼), /keŋsaŋto/, /keŋcecek/(경제적), /kejuk/(교육), /kesjio/(제시요), /kisillako/(제시려고)

D. 喉音系

喉音系는 /h/의 結合만을 볼 수 있는 바 역시 口蓋音化를 經驗하기 때문에 /j/의 削除現象이 나타나. j系 二重母音 /ja, jə, jo, ju/는 각각 /a, ə, o, u/가 된다. 다만 /ja/의 경우 單母音化하여 /e/로도 나타난다.

/saŋ'pu/(향불), /səŋ/(형), /saŋsu/(형수), /'se/(혀), /'se'patak/(헛바닥), /soca/(호자), /suŋjən/(홍넌) etc.

그러나 이 環境의 모든 漢字語가 다 /j/削除나 單母音化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도 制限性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j/系 二重母音 形態素內部에 나타나는 (혹은 語幹內에서) 音韻現象을 綜合해서 하나의 表로 보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先行音 \ 二重母音	ja	jə	jo	ju	je	je
母 音	ja	jə	jo	ju	je	—
齒 擦 音	a	ə	o	u	e	—
兩 唇 音	(A)	e(o)	o(e)	—	e	—
軟 口 蓋 音	(B)	ə(e)	e	u	e(i)	—
喉 音	a	ə(e)	o	u	(C)	—

※ (A)는 /ɛ/(혹은 /a/), (B)는 /e/(혹은 /ɛ/), (C)는 /e/(혹은 /i/)의 可能性이 있으나 實際 用例를 얻지 못했다.

다음은 形態素境界에서 先後母音이 어떻게 結合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j/系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것은 先行하는 形態素의 末母音 /j/와 後行하는 母音 /-a/-ə/의 結合이라는 制限을 가지게 된다. 即 /i/로 끝나는 語幹에 副詞化接辭 /-a/, /-ə/가 連結되는 경우 그 結合母音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a/, /-ə/에 先行하는 /i/ 母音이 갖는 子音類型에 따라 相異하게 實現된다. 咸陽地域語에서는 /Cjə/, 그리고 /jə/에 局限된다.⁽²⁸⁾

A. 母 音 系

/jə/(이+어), /kɛjə/(개이+어)

이 環境의 用例는 많이 얻지 못했으나 先行音이 母音인 경우와 그 音節의 頭音으로 子音이 오지 않는 경우다. 이때에는 거의 二重母音을 形成해 /jə/를 實現시키고 있는 듯하다. /ja/는 實際 /i/에 後行하는 副詞化接辭 /-a/를 連結시키지 않으므로 存在하지 않는다. /jə/의 實現은 결국 形態素內部的 二重母音과 같다.

B. 齒擦音系

(28) 李秉根(1973), pp. 141—143.

崔明玉(1976), p. 69.

/c^hə/(치+어), /cec^hə/(척히+어), /puc^hi nok^ho/(불이+어), /muŋc^hi ka^hko/(몽치+어)
/ʔtance/(던지+어), /ʔtanci ka^hko/(던지+어), /mosi nok^ho/(모시+어) etc.

語幹 /i/母音이 先行子音으로 齒擦音系를 가지는 경우는 대체로 /-ə/, /-i/(/c/系), /-i/(/s/系)로 實現되는 듯하다. 이는 形態素內에서의 /ə/와 比較할 때 /-i/의 實現은 /e/를 통한 高母音化의 一端이었으나 齒擦音의 影響이 強하게 作用한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C. 兩唇音系

/pi:sə/(비+어서), /p^hi:sə/(피+어서), /pipi:sə/(비비+어서), /ʔkimi kak^hko/(꾸미+어)etc.

이들은 모두 /i/로 되는 바 形態素內의 경우와 表面上으로는 相異하나 역시 /e/를 통한 /i/로의 變化는 同一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齒擦音系나 마찬가지로 /jə→e→i/의 過程을 거쳐 Lexical morpheme 內에서보다 한 段階 더 發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곧 南部方言이 가지는 하나의 特徵이 된다.

D. 軟口蓋音系

/jekijo/(여기+어요), /ʔsikijo/(씻기+어요), /ki ka^hko/(기+어), /ikisə/(이기+어서)
/pe^hki:sə/(벗기+어서), /sin^hki nok^ho/(숨기+어)

/硬口蓋音+ə/는 모두 /i/(/혹은 /i:/)로 나타나 前述한 兩唇音系와 同一한 現象을 보여준다.

E. 流音系

/oli:sə/(오리+어서), /sili ka^hko/(시리+어), /ʔkili nok^ho/(끓이+어), /ʔtut^hili ka^hko/(두글리+어), /c^heli nok^ho/(차리+어), etc. (/ʔtut^hile/에서는 /e/가 보인다.)

이들 例는 매우 生産的이어서 /-li/의 語幹末音節과 結合되는 /-ə-/는 거의 /-i-/로 되는 데 이는 表面的으로 /-ə/가 削除되어 語幹末母音 /-i/를 그대로 保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lja→-le→li/의 過程을 거친 것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以上 形態素境界에서의 /Ci/와 /ə/의 結合을 整理해 보면 다음 表와 같이 된다.

先行音 \ 二重母音	ja	jə	jo	ju	je	je
母 音	—	jə	—	—	—	—
齒 擦 音	—	i, ə	—	—	—	—
兩 唇 音	—	i, i	—	—	—	—
軟 口 蓋 音	—	i, i:	—	—	—	—
流 音	—	i, i:	—	—	—	—

결국 全體의으로 語幹末音 /i/가 子音을 先行하는 경우 /-e/와 結合되어 /i/로 實現되는 分布를 가지고 있음이 明確해졌다.

2) /w/系 二重母音

慶尙道方言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二重母音이 他方言에 比하여 그 實現性에 制約이 많고 따라서 二重母音體系도 單母音과 마찬가지로 比較的 간단하다. w系에서도 /a, ə, e, ɛ, i/와의 結合에서 /wa, wə, we, wɛ, wi/를 모두 生成해 내지는 못한다. 즉 w系 二重母音은 /j/系에 比하여 그 分布上의 制約이나 統合上의 音韻論的 形態論的 制約이 매우 甚하게 나타난다. 이 /w/系를 /j/系의 경우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A. 母音系

/wa: cuo/(왜 주오), /wənsiŋi/(원승이), */wecirim/(왜기름)

子音を 갖지 않는 頭音의 /w/系 二重母音에서 /wa/, /wə/는 거의 確實하게 實現되고 있으나 /we/는 [wɛ], [wɛ], [ɛ]의 變異音을 보여주며 /wi/는 單母音의 [y]로도 나타나지 않아 거의 /u/로 되어 있다. 그리고 /we/는 /e/도 實現되어 /φ/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音聲上의 [+round]인 [w]의 結合은 子音과의 連結에서도 간혹 露出된다.

B. 齒擦音系

/ca:sək/(좌석), /ʔceta/(좌다), /ci/(취), /sipʔta/(쉽다)

이 齒擦音系 子音과 /w/系 二重母音과의 結合은 語頭에서 /w/의 削除를 經驗한다. 결국 이들은 [+coronal]+w/[+back]에 있어서 두 資質이 共通的으로 [+back]인 메다가 子音의 制約으로 形成된 것이라 하겠다. /t/子音일 경우 이 地域語에서는 /te: kɛ/(퇴게, 힘들게), /tɛ.ci, te.ci/(퇴지)로 實現되어 /w/의 削除現象이 일어난다.

C. 兩唇音系

이 系統의 子音과 관계되는 /w/系 二重母音은 Lexical morpheme의 경우 그 用例를 찾기가 어려우나 (語頭에서) /mə/(무엇)나 漢字語의 第二音節인 경우

/saməl/(삼월), /sipən/(십원), /sami/(삼위), (/pə:kʰɛ/(부엌에))

로서 /w/의 削除로 實現된다.

D. 軟口蓋音系

/kasil/(과실), /kakə/(과거), /kak/(과), /ki/(귀), /ʔkeŋi/(팽이), /kisin/(귀신), /kihata/(귀하다), /keʔcak/(케작), /ʔkoŋ/(경), /ʔkontʰu/(권투)

이들도 /w/의 削除를 보여 單一化된 樣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ʔkoŋ/, /ʔkontʰu/는 wə>o의 相異한 規則을 보여준다. 音聲上의 立場에서는 [wə]와 類似性을 가지는 것으로 /o/는 보다 깊은 次元에서 理解된다.

E. 喉音系

/ha:li/(화로), /hɛʔpul/(햇불), /ha:ŋkap/(환갑), /hə:nhata/(원하다)

/h/를 語頭子音으로 하는 /w/系는 모두 /w/의 削除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檢討한 語幹內에서의 語頭 /w/系 二重母音에 關係되는 것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二重母音 先行音	wa	wə	wɛ	wɛ	wi
母 音	wa	wə	—	(wɛ)	—
齒 擦 音	a	—	*(e)	—*(e, e)	i
兩 唇 音	a	ə	—	—	i
軟 口 蓋 音	a	(o)	e	ɛ	i
喉 音	a	ə	e	ɛ	(未調査)

결국 /w/系는 語頭の 非子音音節에 限하여 /wa/, /wə/가 主軸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다음에 /j/系와 같이 形態素境界에서의 /w/系 二重母音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關與 되는 語幹의 末母音은 /u-/ /o-/이고 거기에 副詞化接辭 /-a/-ə/가 結合되는 條件이다. 따라서 이에는 /wa/, /wə/가 該當된다.

A. 母 音 系

/moa/(모우+아), /c^hɛwə/(채우+어), /c^hɛa/(채우+어)

/t^hɛwə/(태우+어), /p^hia/(피우+어), /wa/(오+아)

이들은 약간 不安定된 상태에 있는 듯하다. 西南慶南方言에서 /-wə/는 /-a/로 實現되는 것이 一般的이라면 이 地域語는 /a/, /wə/ (혹은 /wə/)의 두 樣相을 보여준다. 그리고 /wa/는 /wa/로 나타난다.

B. 齒擦音系

/co:/(주+어), /mac^ha:/(맞추+아), /kac^ha:/(갖추+아)

實際 用例를 많이 얻지 못해 斷言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齒擦音+u+a/에서 /u+a/는 /a:/로 實現되는 듯하고 ‘주다’의 경우에 /co:/가 나타나는 것은 確認할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C. 兩唇音系

語頭音으로 兩唇音이 오는 것은 ‘푸다’와 같은 語幹末母音이 /u/인 경우와 接辭로서 第二音節 以下에 오는 ‘-보다, ’-쁘다, ’-프다,의 경우가 있겠다. 後者は 圓唇母音化에 의해 各各 /-puta/, /-²puta/, /-p^huta/로 되기 때문이다.

/p^hə/(푸+어), /pa²pa/(바쁘+아), /e²pə/(예쁘+어), /kop^ha/(코프+아)

그리고 ‘보다’에 대해서는 /pa:/(보+아)로 實現되는 點을 생각할 때 /wə/, /wa/는 兩唇子音下에서 /ə/, /a/로 된다.

D. 軟口蓋音系

/ulkajo/(울구+아), /ilka/(일구+아), (/wa/가 보이기도 한다.), /ka:/(고+아), /²ka:/(꼬아) 이들은 모두 /w/ 削除에 의해 /a/로 나타난다. 간혹 音聲上的 圓唇性이 介在되는 때도 있다.

E. 其 他

/no:/(누+어), /to:/(두+어)

이상 形態素境界에서의 /w/系 二重母音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二重母音		wa	wə	二重母音		wa	wə
先行音				先行音			
母音	音	wa	a(wə)	齒擦音		a	a(o)
兩唇音		a	ə	軟口蓋音		a	—
其他		—	o				

지금까지 우리는 咸陽地域語의 /j/系와 /w/系の 基底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形態素內部 및 形態素境界에서 어떻게 實現되고 變하는가를 그 分布와 制約의 諸側面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二重母音의 實現은 形態素境界에서나 形態素內部에서나 音節頭音으로 子音を 取하지 않을 때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慶尙道方言의 單母音의 數가 他方言에 비해 적기 때문에 本來 複雑한 樣相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形態素內部에서 先行音으로 子音を 取하는 경우는 勿論, 形態素境界에 있어서도 二重母音의 實現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特徵을 가진다. 이는 곧 慶尙道方言의 한 性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으나 單母音化나 /j/, /w/等 glide의 削除에서 두가지 以上の 實現型을 보여주는 것은 全羅北道와 接한 接觸地域語라는 特性과 더불어 西北慶南方言이라는 한 下位方言을 假說的으로나마 考慮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대체로 /j/系와 /w/系에 있어서 그 環境과 分布로 볼 때 兩面性을 띄고 있고 同時에 音韻現象의 平行性和 相違性이 약간은 共存한다는 사실이 咸陽地域語 自體의 特徵이라고도 하겠다.

9. 音韻體系⁽²⁹⁾

1) 子音體系

하나의 音韻體系는 그 言語에 나타나는 音韻論的 對立의 總和라고 한다면 各音韻은 辨別的 資質의 集合體라고 하겠다. 이 地域語의 子音은 中部方言과 差異가 없는 듯하다.

/p, pʰ, ʔp/, /t, tʰ, ʔt/, /c, cʰ, ʔc/, /s, ʔs/, /k, kʰ, ʔk/, /n/, /m/, /l/, /ŋ/ /h/

이들의 minimal pair에 따른 辨別的 機能이나 그 資質들을 各各 論할 必要를 느끼지 않아 略하기로 하거니와 硬口蓋音이나 口蓋音化에 따라 實現된 硬口蓋音들은 역시 辨別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c, cʰ, ʔc/로 音韻化된다.

2) 母音體系

이 地域語의 單母音體系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29) 音韻分析의 諸過程을 各音韻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煩雜하여 여기서는 問題되는 音韻에 대해서만 說明해 나간 것이다.

/i/ /i/ /u/ /e/ /e/ /ə/ /o/ /a/⁽³⁰⁾

慶尙道方言에서 6母音體系를 設定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e/와 /e/, /i/와 /ə/의 中和에 관한 것이다. 즉 /E/와 /ɤ/의 實現이다. 그러던 우선 /e/와 /e/가 이 地域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辨別的 機能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ke/(계)—/kɛ/(개), /te/(되)—/tɛ/(대), /pe/(배)—/pɛ/(배)

이들은 第二音節以下에서 中和되거나 隨意的인 樣相을 보이는 듯하다. 그리고 /i/ : /e/ : /e/의 段階的 對立이 形成되어 있으나 比較的 音聲間隔의 幅이 좁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어떤 環境이 주어졌을 때는 /e/→/e/→/i/의 過程을 보여준다. 이는 이 地域語의 前舌母音間隔(高低)이 中部方言보다 相互 接近되어 있음을 意味한다. 다음에 /i/와 /ə/의 경우도 minimal pair에 있어 辨別的 機能을 보여주고 있으며 /i/와 /ə/는 /ə/와 /a/ 보다 더 接近되어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kim/(금)—/kəm/(검), /ki/(글)—/kəl/(겔)

그리고 後舌의 /i/와 /u/, /ə/와 /o/도 역시 매우 密接한 關係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母音을 間隔에 따라 다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i/→ /u/
↑ /e/ ↑ /ə/→ /o/↑
↑ /e/
/a/

音韻 /y/, /ɸ/는 이 地域語에 存在하지 않는다. 中部方言의 /y/, /ɸ/는 모두 /i/, /e/로 實現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地域의 二重母音體系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된다.

/ja, ja, jo, ju, (je)/ (/je/는 不安定함)

/wa, wə, (we)/ (/we/는 隨意的임)

이들이 頭音으로 子音을 가질 때에는 거의 單母音化하거나 /j/ 혹은 /w/의 削除를 經驗하기 때문에 實際로는 語頭母音音節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京畿道方言의 /je/, /we/, /wi/, 忠清道方言의 /ji/ 등은 이 地域에 存在하지 않는다. 그리고 /ij/는 /i/로 實現되기 때문에 어느 環境에서든지 나타나지 않는다.

咸陽地域語의 音韻體系는 결국 ① 子音 19個 ② 單母音 8個 ③ 二重母音 最低 6個로 都合 33個이나 半母音 /j/ /w/를 넣으면 35個가 된다. (聲調素는 除外하였다)

III

以上 극히 疏漏하게 다루어 온 咸陽地域語의 音韻論의 性格과 몇가지 特徵을 綜合記述하는 것

(30) 鄭然燦(1968), pp. 66—79.

金永松(1974), pp. 331—333.

崔明玉(1976), pp. 62—63.

으로 結論에 代身하고자 한다.

1. 우선 咸陽地域은 慶尙南道 西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正確히는 西北部) 全羅北道 南原郡과 接하고 있어 接觸方言의 性格을 가지는 바 이는 言語外的 要素와 方言意識을 考慮할 때 더욱 明確해진다. (31)

2. 口蓋音化現象中 /t/, /n/, /l/, //h/ /s/系는 口蓋音化 實現地域語의 그것과 同一하게 나타난다. 다만 /k/系에 있어 南部方言의 制約條件中 特徵적인 것은 Umlaut 現象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第2音節以下에서 先行音節의 母音이 前部母音이거나 全部母音化될 可能性이 있을 때는 /k/ 口蓋音化는 制約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들은 形態素境界나 單語境界라는 새로운 條件을 誘導하게 된다.

3. 語頭硬音化現象은 中部方言보다 훨씬 生産的이지만 역시 그 規則의 樣相이나 制約條件은 明白하지 않다. 그리고 語幹末子音群에 있어서는 거의 中部方言과 同一하나 /lk/, /lp/를 갖는 用言의 경우 南部方言圈의 特徵과 一致한다. 거의 /l/을 脫落시킨다. 反面에 體言은 隨意性を 지닌다.

4. 中和現象은 子音의 경우 대체로 特性이 없으나 다만 母音形態素가 連結될 때 中和는 일어나지 않는다. 語末子音의 再構造化는 隨意的이긴 하나 比較的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5. 史的 變化와 聯關되는 語中子音의 介在는 /p/, /k/, /s/에 局限되지만 世代的 差異를 보인다.

6. Umlaut 現象은 南部方言의 그것과 同一하다. 따라서 音韻論的 制約뿐 아니라 形態論的, 形態音素論的 制約으로부터 脫皮하려는 努力이 보이며 Lexical morpheme과 Grammatical morpheme 간의 自由로운 Umlaut 現象은 그 幅의 擴大性을 意味한다. 그리고 前部母音化를 일으키면서 그 前部母音들의 좁은 間隔때문에 /i/로 上昇化하는 特性을 보인다.

7. 史的 · 音은 兩唇音을 先行시킨 경우 거의 /o/로 변했다.

8. 二重母音은 形態素內部에서나 形態素境界에서나 音節頭音으로 子音을 取하지 않는 경우에 明確히 實現되어 /ja, jə, jo, ju/ /wa, wə/가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先行音으로 子音을 取하는 경우 語頭에서도 모두 單母音化나 /j/, /w/ 削除를 經驗한다. 그리고 形態素內部, 形態素境界에서의 二重母音의 音韻現象은 完全히 一致되지 않고 항상 그 平行性和 相違性을 共存시키고 있다.

9. 音韻體系에 있어 子音體系는 中部方言과 同一하며 (이 地域에는 /s/에 대한 /ʰs/가 存在한다.) 母音體系는 單母音 /i, e, ɛ, i, ə, a, u, o/와 二重母音 /ja, jə, jo, ju/, /wa, wə/로 되어 있다. 單母音의 /i, e, ɛ/는 比較적 漸進的 對立에 있어 그 幅이 좁으며 /i, ə, u, o/는 後舌母音의 資格을 가진과 동시에 역시 매우 密接한 關係를 가진다.

(31) 現地 土着人들의 方言意識속에는 自己들의 말에 대해 어떤 差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慶尙南道의 他地域에 가면 全羅道方言의 影響을 指摘받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 抑揚에서 調査者가 印象적으로 느낀 것은 慶南의 他地域보다 弱하고 南原의 雲峰보다는 強한 것으로 認識되었다.

끝으로 本考에서 未備된 점은 此後에 補完修正해야 할 것이거니와 南原(雲峰) 地域語와의 比較가 매우 興味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論 著

- 金手坤 (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Doctori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金永松 (1974), 慶南方言, 國語方言學 所收, 螢雪出版社.
 金永泰 (1975), 慶尙南道方言研究(1), 進明文化社.
 金完鎭 (1971a), 音韻現象과 形態論의 制約,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所收, 一潮閣.
 — (1971b), 高句麗語에 있어서의 t 口蓋音化現象에 對하여,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所收, 一潮閣.
 — (1975), 全羅道方言 音韻論의 研究方向設定을 爲하여, 어학2, 全北大 語學研究所.
 金亨奎 (1962), 口蓋音化考, 國語史研究 所收.
 — (1964), 慶尙南北道方言研究, 서울大 論文集 10.
 — (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安秉禧 (1957),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 口蓋音化에 對하여, 一石李熙昇先生頌壽紀念論叢.
 李基文 (1959), 十六世紀國語의 研究, 高大 文理論集 4.
 — (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對하여, 震檀學報 23.
 — (1972a), 改訂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 (1972b),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李秉健 (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李秉根 (1969), 方言境界에 對하여, 文化人類學 2.
 — (1971), 雲峰地域語의 움라우트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 (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對하여, 震檀學報 32.
 — (1974), 音韻規則과 非音韻論의 制約, 國語學 3.
 李崇寧 (1954), 國語音韻論研究, 第1輯「·」音放.
 — (1967), 韓國方言史,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史),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李翊燮 (1972), 江陵方言의 形態音素論의 考察, 震檀學報 33.
 — (1979), 方言資料의 蒐集方法, 方言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田光鉉 (1976), 南原地域語의 語末 u型語彙에 대한 通時音韻論의 小考, 國語學 4.
 — (1977), 全羅北道 益山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 어학 4, 全北大 語學研究所.
 — (1978), 南原地域語의 基礎語彙調査 研究, 也泉金敬善先生停年紀念論叢.
 鄭然榮 (1968), 慶南方言의 母音體系, 國文學論集 2, 檀國大.
 — (1975), 慶尙道方言聲調研究, 國語學紀要 1.
 崔明玉 (1974), 慶南 三千浦方言의 音韻論의 研究, 國語研究 32.
 — (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 의 音韻現象, 國語學 4.
 — (1978), 東南方言의 세音素, 國語學 7.
 韓載賢 (1975), 國語口蓋音化의 再檢討, 어학 2, 全北大 語學研究所.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 下)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館.
 慶尙南道誌 編纂委員會(1960), 慶尙南道誌(上)
 金富軾, 三國史記 地理志.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 31,
 朝鮮總督府中樞院, 校訂 慶尙道 地理志.